

# 2년 만의 고향집...“부모님만 뵙고 올게요”



우리는 역귀성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6일 광주송정역에서 한 부부가 선물꾸러미를 들고 기차에 오르고 있다. /김승훈 기자

## 르포 광주송정역 가보니

서울·전라 귀성객 상당수...평소보다 활기  
유동인구 고려 연휴 전 1~2일 방문 계획  
“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 것”

“2년째 고향에 가질 못해서 이번엔 부모님 얼굴만 뵙고 오려고요. 외출 없이 집에서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추석 황금연휴 5일이 코앞으로 다가 오면서 서울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전남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높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심 걱정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명절마다 고향에 가질 못해 이번에는 단 하루만이라도 다녀오겠다는 이들이 상당수다.

16일 오전 찾은 광산구 광주송정역. 연휴 시작 이들 전임에도 불구하고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벼운 쇼핑백을 든 편한 옷차림의 대학생부터 캐리어에 짐을 바리바리 싣는 직장인, 정성껏 만든 음식을 짬뽕바리를 머리에 이고 연신 시계를 쳐다보는 할머니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용산에서 내려온 대학생 이모씨(21·여)는 “부모님은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1년 넘게 본가에 가질 못해 이번에는 큰맘 먹고 내려왔다”면서 “전날 일찍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오늘 아침 음성 판정 문자를 받아본 후에 출발했다. 본가에 가면 밖에 나가지 않고 가족들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에서 일하는 아들을 보러 가는 김모씨(59)는 “작년 설날 이후로 아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면서 “아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일하는 데다 회사에서 귀향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와 이번에는 내가 직접 연휴 전에 미리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도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막 도착한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로 잠시 붐비기도 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창가 쪽 좌석에만 앉을 수 있어 예매가 제한돼 예년 명절 귀성 풍경에 비하면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오랜만에 물린 승객

들로 역은 평소보다 활기가 돌았다.

목포로 가는 KTX 기차를 기다리는 직장인 한모씨(27)는 “명절에 바쁜 직장이라 이틀 당겨서 쉬고 연휴기간에 일한다”면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돼 사람이 붐비기 전에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을 보고 일요일에 다시 올라 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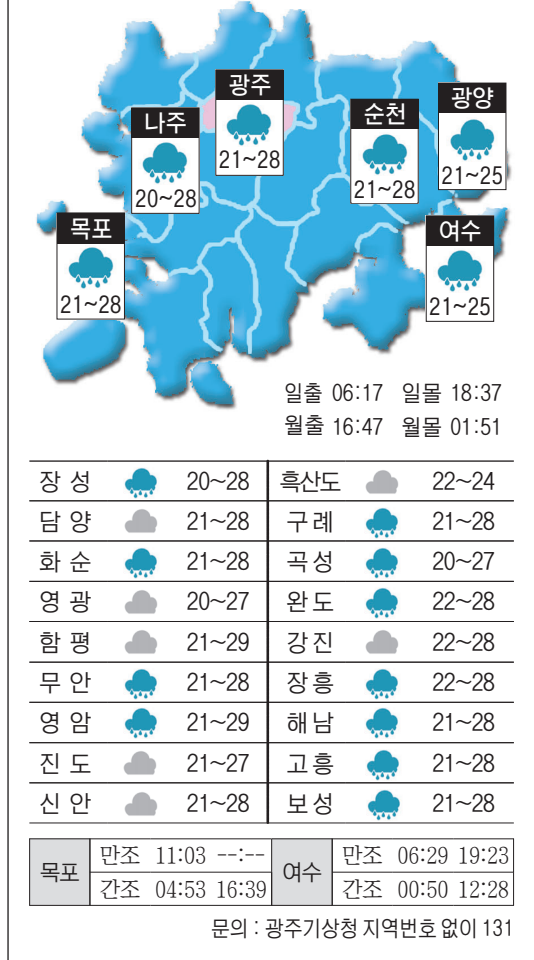
이날 광주송정역에서 용산·서울로 가는 KTX 중 퇴근 시간 이후 출발하는 기차 편은 특실이 매진되기도 했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17일 광주송정역에서 서울·용산으로 가는 KTX 예매 현황을 보면 오후 1시 이후 도착분부터 매진 행렬이다. 16일 오후 기준으로 15편 중 13편이 매진됐다. ITX-새마을 기차도 4편 중에 2편이 매진됐다.

18~19일 기차 편은 예매가 가능하다. 연휴 시작 전 귀성을 결정한 이들이 다 빠져나간 결과로 해석된다. 이후 20일 오후부터 다시 매진된 기차 편이 늘어면서 21~22일 기차 편은 이른 아침 1~2편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약이 찬 상태다.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기차표 예매 결과가 보여주듯 올 추석에는 고향을 찾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을 찾는 승객들과 시민들은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오늘의 날씨



## “추석 귀성·귀경길 굿은 날씨”

올해 추석 광주와 전남에서 귀성길과 귀경길은 굿은 날씨를 보일 것이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17일은 제14호 태풍 ‘찬루’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전남 동부권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 연휴 첫째 날인 18일부터 추석 전날인 20일까지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석 당일에는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새벽에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다.

비는 오전에는 광주와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겠다. 귀경객이 몰리는 22일에는 비와 안개로 인해 해상과 육상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 /김민빈 기자

## 경찰, 여수시 ‘인허가’ 부서 압색

경찰이 아파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16일 여수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순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수사팀을 여수시청에 보내 인허가 관련 부서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공동주택은 최근 건축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으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미국, ‘전두환 축출 역쿠데타’ 반대

5·18기념재단, 비밀해제 미국 문서 전달받아

5·18기념재단은 외교부가 16일 미국 카터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비밀해제된 미측 문서 사본 882쪽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 “아직 부족하다”면서 추가 문서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대사관 전문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1980년 당시 한국군 내 전두환을 몰아내려는 ‘역쿠데타’ 모의 관련 정보를 입수했으나 ‘군 내부의 분열이 12·12사태보다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한 사실 등이 들어있다.

재단은 “5·18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 문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특

히 5·18 당시의 군부대 이동, 총정작전과 광주 진압작전 수립·전개과정, 발포 관련 지휘체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1980년 당시 한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군부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한미연합사령부 ▲국방정보국(DIA) ▲정보보안사령부 공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관계 기록물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외교부는 더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선우 기자

## “계엄군 장갑차에 치여 군인 사망”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 증언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전두환 회고록 속 ‘군인 장갑차 사망’에 대해 “시민군이 아니라 계엄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2부는 지난 15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 배치됐던 이경남 목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목사는 당시 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소속으로, 1993년 ‘당대비평’ 기고를 통해 권유은 일병이 계엄군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고 1995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시민들의 버스, 트럭 등이 저지선을 넘어 돌진하니가 군부대 장갑차가 급히 퇴각하면서 넘어진 군인을 덮쳤다”며 “광주YMCA 앞 인도로 피하고 나서 돌아보니 병사 한 명이 후진하던 무한궤도형 장갑차에 치여 즉사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광주 금남로에서 대치 중이던 시민 시위대와 11공수여단 계엄군 사이에 광주 기갑학교로부터 지원받은 무한궤도형 장갑차 두 대가 배치돼있었다.

이 중 광주YMCA 쪽 차로에 있던 장갑차 한 대가 후퇴하면서 도청 쪽으로 뛰어나오다가 넘어진 권 일병을 덮쳤다 는 것이다.

이 목사는 “저의 추정으로는 그때 1차 가해 후 도시형 장갑차나 시민군 차량에 의해 2차·3차 가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시민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했다는 진술도 나왔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화춘 기자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전남매일

2021 September 09

Vol.70

커비스토리

김태봉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현장 목소리 반영  
맞춤형 치안서비스 최선”

특별 초대석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특집

신안·흑산도 <상>

김태봉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커비스토리

“현장 목소리 반영...  
맞춤형 치안서비스 최선”

취임 3개월째...자치경찰제 안착 책임감 · 자신감 생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 1호 시행 주축  
주민 참여 · 소통 활발 권위적 경찰상 탈세 계기 맞게 돼  
장기적으로 자치 · 국가경찰 사무 담당 경찰조직 이원화해야

【특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평범한 국민들과 위대한 변화를 이룩할 터”

‘낮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국민의 목소리’ 차별없이 들어야 남구 에너지밸리, 미래성장축 기대...  
주민 주거 환경도 개선 지방재정 경쟁력 제고 시급...대선 공약은 실천 가능성에 방점

【플뿌리기초의원탐방】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주민들 가려움 긁어주는 속시원한 의원되겠다”

동명칭 · 구역조정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 두각 청소년지도사 등 자기개발 속 지역사회  
소통 주축 공약 이행 골목 · 도시재생 등 한민사업 해결 주력

【한국의 명장】

맹화장 현담스님

조선 탕화 화맥 잇는 탕화장 천연석재 복원 위해  
재료 · 기법 발굴 시대 반영에 로켓 · 핸드폰 그려넣어

【가볼만한 곳】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순수문학 이으며 전국 문학관 변형

한국 순수 서정의 진수 문헌한자리에 ‘시문학’ 원본, ‘님여침묵’ 초간본 등 전시

지역대학 위기, 해결방안은

광주 · 전남 대학 ‘학과 신설’로 위기 대응 전남대 140명 조선대 129명 등  
정원 미달 학령인구 감소 원인...정원모집 미스매치 발생  
광주시 · 전남도 유관 기관 등 협의체 구성

【이슈추적】

팩트체크

GGM 신차 양산체제 돌입

GGM 광주로발모터스

GGM, “따끈한 신차” 출시 임박 현대차 위탁 생산 1000cc급  
경형 SUV를 연말까지 4개월간 1만2천대 생산 목표

건강백세

홍어와 경옥고

시간의 미학

경제인 인터뷰

영원한 안식처로  
대구는 특별한 공간  
“천지정례식장”  
3,500평 규모 고급  
호텔식장시설 완비  
마음은 함께 나누고  
힘은 일로 먼저 살린

배창숙  
천지정례식장 대표

맛있는남도

순천 웃장국밥

깔끔하고 개운한 맛에 푸짐한 인심까지 돼지 찜자 아닌 돼지 머리 사용해 깔끔  
넉넉한 한 접시, 수육 · 순대 서비스로 즐겨 불거리 즐길 거리 가득한 웃장 국밥 축제